

# 회귀 서사의 트라우마 작업화와 정체성 재구성 - 〈절대회귀〉 주인공의 회귀 전 경험을 중심으로 - (Working Through Trauma and Identity Reconstruction in Regression Narratives: Focusing on the Protagonist's Pre-Regression Experience in Absolute Regression)

임소영\*

(So Yeong Lim)

## 요약

본 연구는 웹소설 회귀 서사에 내재된 트라우마 극복의 서사적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 〈절대회귀〉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외상적 사건, 반복 강박, 지연된 재현, 작업화라는 정신분석적 틀을 적용하여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본 작품의 회귀 서사는 단순한 시간 되돌리기나 성공 재현의 장치에 그치지 않고, 주인공의 내적 변화와 심리적 치유 과정을 단계적으로 구조화하는 복합적 메커니즘으로 기능함을 확인하였다. 주인공은 첫 삶에서 가족과 공동체 상실이 라는 외상을 경험하고, 회귀 이후에도 반복 강박과 지연된 재현을 통해 트라우마를 재경험한다. 그러나 이러한 반복은 관계와 무력의 재구성을 통해 점차 치유적 의미를 획득하며,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은 트라우마 재의미화의 핵심 축으로 작동한다. 더 나아가 미래 지식의 한계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작업화가 이루어지고, 주인공은 현재를 주도하는 주체로 정체성을 재구성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회귀 서사가 트라우마의 직면과 치유, 관계 회복을 통해 독자에게 심리적 공감과 위안을 제공할 수 있음을 밝힌다.

■ 중심어 : 회귀서사 ; 트라우마 ; 반복강박 ; 작업화 ; 정체성 재구성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narrative mechanisms of trauma resolution embedded in regression narratives of Korean web fiction through an analysis of Absolute Regression. Drawing on key psychoanalytic concepts—traumatic events, repetition compulsion, deferred representation, and working-through—the study demonstrates that regression functions not merely as a device for temporal reversal or success reenactment, but as a structured process of psychological transformation. The protagonist's initial experience of trauma, marked by the loss of family and community, is repeatedly reactivated after regression through compulsive repetition and deferred representation. Over time, however, this repetition acquires a reparative function through the reconstruction of agenc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particularly the restoration of the father-child relationship, which enables the re-signification of trauma. Furthermore, the recognition of the limitations of future knowledge facilitates working-through and the reconstitution of the protagonist's identity as an active subject in the present. This study argues that regression narratives possess significant potential to provide psychological resonance and consolation for contemporary readers.

■ keywords : Regression Narrative ; Trauma ; Repetition Compulsion ; Working Through ; Identity Reconstruction

## I.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웹소설 시장은 급격한 성장과 함께 다

\* 정회원, 예원예술대학교 애니메이션&웹툰학과

이 논문은 2025년도 예원예술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접수일자 : 2026년 01월 06일

게재확정일 : 2026년 01월 14일

교신저자 : 임소영 e-mail : redprism@hanmail.net

양한 서사적 변주를 보여주고 있다. 그중에서도 ‘회귀(回歸)’는 가장 대표적인 플롯 장치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수많은 작품에서 핵심적인 구조로 활용되고 있다. 회귀 서사는 기본적으로 주인공이 실패나 좌절을 경험한 이후 과거의 시점으로 되돌아가, 이전에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담는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히 시간적 반복에 국한되지 않고, 인물의 내적 성장과 극복, 그리고 심리적 해방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서사적 장치로 작동한다.

회귀에서 가장 큰 특징은 ‘기억의 보유’와 ‘선택의 수정’에 있다[1]. 주인공은 과거의 기억을 지닌 채 다시 현재를 살아가며, 이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을 변경한다. 이 과정은 독자에게 주인공이 직면했던 고통과 좌절을 다시 환기하는 동시에, 달라진 선택을 통해 그것을 극복하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회귀는 단순한 성공의 반복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기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회귀 서사에서의 반복은 프로이트가 언급한 ‘반복 강박(repetition compulsion)’과 유사한 면모를 지닌다. 인간은 외상적 경험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웹소설의 회귀는 이러한 심리적 원리를 서사적으로 형상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주인공은 과거로 회귀하여 같은 사건을 다시 겪지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결과를 바꾼다. 이는 곧 트라우마의 재현이자, 동시에 치유의 과정이기도 하다. 독자는 이를 통해 “과거의 상처는 다시 마주할 수 있으며, 달리 선택 할 경우 극복이 가능하다.”는 심리적 위안을 얻는다.

또한 회귀 서사의 대중적 확산은 동시대 사회적 배경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불확실성과 경쟁이 심화된 사회에서, 한 번의 실패가 곧 인생 전체의 좌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은 점점 커

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회귀 서사는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상상력을 제공하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희망을 독자에게 전달한다[2]. 그러나 그 과정은 단순한 성공의 달성이 아니라, 실패와 상처로부터의 치유와 자기 확립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서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 2. 연구방법

연구 방법은 웹소설 회귀 서사 속에서 내재된 트라우마 극복의 서사적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외상적 사건이 남긴 기억과 상처의 잔존 양상을 고찰한다. 둘째, 반복 강박에 따라 과거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주인공이 달라진 선택과 행위를 수행하며 트라우마를 극복하거나 전환하는 방식을 분석한다. 셋째, 지연된 재현의 개념을 통해 사건이 재소환되는 과정을 탐구한다. 넷째, 작업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선택과 전환이 어떻게 가능해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회귀 서사가 단순히 장르적 재미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자에게 심리적 치유와 위안을 제공하는 서사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웹소설 회귀 서사 작품으로 <절대회귀>이다. 이 작품은 네이버 시리즈에서 평점 9.9라는 최고 수준의 독자 평가를 기록하여 작품의 질적 수용도가 매우 높음을 보여준다. 8,816만 건의 관심 등록 수치는 독자들 사이에서 작품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인기를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한다[3]. 이는 일시적 유행을 넘어 회귀 서사 장르 내에서의 대표성을 시사한다. TOP 100 상위권 랭킹 유지와 11만 건 이상의 독자 반응 지표는 독자들의 활발한 참여와 담론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4]. 이는 작품 분석에서 중요한 텍스트적·사회적 기반을 제공한다. 따라서 <절대회귀>는 단순한 개별 독자의 선호를 넘어 대중적 공감과 사회적 수용도를 확보한 회귀 서사 웹소설로서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반복 강박(Repetition Compulsion)

반복 강박(Repetition Compulsion)은 프로이트가 『기억, 반복, 그리고 작업(Memorizing, Repeating, and Working Through)』에서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환자가 억압된 기억을 의식적으로 회상하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재현하는 경향을 설명한다[5]. 이후 프로이트(1920)는 『쾌락 원칙을 넘어서』에서 외상적 경험이 무의식적으로 반복 재현되는 현상을 반복 강박으로 명명하였으며, 이는 인간이 외상적 사건을 통제하고 극복하려는 무의식적 욕망의 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6]. 이러한 반복 강박은 단순한 충동의 반복이 아니라,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무의식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이를 통제하고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심리적 메커니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복 강박은 트라우마 경험의 무의식적 재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개인이 의식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험을 반복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심리적 갈등을 작업(work through)하고 통합적 이해를 시도하는 과정으로 논의된다[7]. 또한, 현대 심리치료 연구에서는 반복 강박이 단순히 부정적 경험의 재현이 아니라, 내적 갈등과 정서적 긴장을 조절하고 과거 경험을 재구성하는 능동적 심리 과정임을 강조하고 있다[8]. 따라서 반복 강박은 트라우마 경험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개념이다.

### 2. 지연된 재현(Deferred Action)

카루스(Caruth)는 트라우마가 발생 당시에는 온전히 경험되지 못하고, 이후 반복적·우회적으로 재현된다고 설명한다. '지연된 재현'은 외상 경험이 단순한 기억의 저장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 시점과 그 의미가 의식적으로 통합되는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이를 프로이트의 후속성(Nachträglichkeit)

개념과 연결하여 설명하며, 외상 사건은 너무 갑작스럽고 이른 시점에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이해되거나 의미화될 수 없으며, 따라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의식 속에서 재현되고 의미화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지연된 재현의 과정은 외상 경험을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니라, 사건과 그 의미의 시간적 간극 속에서 분석해야 함을 시사한다. 카루스는 또한 외상을 단순한 심리적 상처가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현실이나 진실을 드러내는 '상처의 이야기'로 보며, 이로써 외상 경험이 개인의 내러티브와 기억 구조를 변형시키는 복잡한 과정을 설명한다[9]. 결과적으로 '지연된 재현' 개념은 외상 경험의 이해와 서사적 재구성을 탐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외상은 직접적 언어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복적 서사를 통해서만 드러난다.

### 3. 작업화(Working Through)

라카프라(LaCapra)는 트라우마 서사가 단순한 재현을 넘어 '작업(working through)' 과정을 통해 치유적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반복적 서사 과정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새롭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그는 작업화를 반복 강박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제시하며, 외상 경험을 의식적으로 숙고하고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강조하였다[10]. 작업화는 단순한 반복적 재현에 그치지 않고, 개인이 경험을 의미화하며 감정적·심리적 영향을 처리함으로써 정신적 균형을 회복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특히 그는 역사적 외상 연구에서 집단적 기억과 개인적 기억이 상호작용하는 맥락 속에서 작업화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탐구하며, 반복 강박의 무의식적 재현과 작업화의 의식적 통합 과정을 명확히 구별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트라우마 서사 분석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가 외상적 사건을 처리하고 의미화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 Ⅲ. 본 론

#### 1. 외상적 사건 (Trauma Event)

주인공의 외상적 사건은 첫 번째 삶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한 파괴적 상실에서 비롯된다. 그는 다가오는 재앙 앞에서 무력하게 가족과 친구를 잃었고, 그 과정에서 자존감마저 상실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은 단일한 충격으로 그치지 않고, 주인공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깊은 상처로 남아 서사의 정서적 기반을 형성한다. 주인공은 외상을 기억하고, 인식하며, 책임질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회귀를 가능하게 하는 관문으로 작동한다. 그러므로 외상적 사건은 주인공을 파괴하는 계기가 아니라, 반복 강박을 자각하고 회귀를 선택하게 만드는 서사적 핵심 기제이다.

#### 2. 반복 강박 (Repetition)

회귀 이후 주인공에게 나타나는 반복 강박은 관계, 무력, 그리고 치유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먼저 관계적 측면에서 보면, 회귀 이전의 주인공은 아버지와 소원한 관계에 놓여 있었으며, 후계자 경쟁에서 밀려난 끝에 아버지와 형의 죽음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 경험은 주인공에게 깊은 상실감과 후회, 그리고 죄책감을 남기며 트라우마의 근원이 된다. 그러나 회귀 이후 그는 동일한 관계를 반복하는 대신, 아버지와 함께 사냥을 나서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여가를 공유하는 등 이전 삶에서 결핍되었던 교감을 적극적으로 축적해 나간다. 이러한 행위는 상실된 관계를 다시 맺음으로써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는 무의식적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무력의 차원에서도 반복 강박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회귀 이전 삶에서 주인공은 무력함으로 인해 소중한 이들을 지키지 못했으며, 이는 그의 트라우마의 핵심을 이룬다. 회귀 이후 그는 이 무력함을 ‘압도적인 무력(武力)’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반복한다. 치열한 수련을 통해 아버지의 권위와 무력에 필적할 만큼 성장하고, 무림 통일을 꿈꾸는 아버지와 갈등하는 상황에서도 과거처럼 침묵하거나 물러서

지 않는다. 대신 대화와 무력을 병행하며 상황을 능동적으로 통제하려 한다. 이는 과거의 무력했던 사건을 현재에서 주체적으로 재현하고 통제하려는 반복 강박의 전형적인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치유의 차원에서 주인공의 반복은 개인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주변 인물에게까지 파급된다. 그의 성장은 아버지의 무공 발전과 새로운 깨달음을 촉진하며, 이는 정신분석적 의미에서 ‘작업화(working through)’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아버지가 아들의 성취를 바라보며 자부심과 동시에 걱정을 드러내는 장면은, 과거에 결핍되었던 부자 관계가 한층 심화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주인공의 반복은 개인적 트라우마의 극복을 넘어 관계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확장하여 반복이 파괴가 아닌 치유의 메커니즘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드러낸다.

#### 3. 지연된 재현 (Deferred Action)

지연된 재현은 미래 지식의 개입과 더불어 나타난다. 비록 주인공이 전생의 경험으로부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에도 불구하고, 외상적 사건은 여전히 ‘지연된 방식’으로 재소환된다. 과거에 막지 못했던 재앙에 다시 직면하는 경험은 단순한 기억 환기가 아니라, 두려움·불안·절망과 같은 감정들을 현재적 체험으로 되살린다. 미래 지식은 이러한 지연된 재현을 가능케 하는 장치로 작용하여, 주인공이 사건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지만 동시에 과거의 망령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지연된 재현은 주인공에게 심리적 갈등을 유발한다. 그는 미래 지식을 바탕으로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며 과거 경험과 유사한 무력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반복적 긴장과 불확실성은 주인공이 단순히 외적 사건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내면에 존재하는 트라우마와 정면으로 맞서도록 만든다. 지연된 재현은 주인공의 내적 갈등과 심리적 압박을 심화시키며, 단순히 과거를 바꾸는 서사를 넘어 트라우마를 직면하고 의미화하며 치유하는 과정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특히 주인공과 아버지의 관계는 이러한 내적 갈등과 치유의 과정을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핵심 축으로 기능한다. 아버지는 역대 천마 가운데서도 가장 압도적인 무력을 지닌 존재로, 주인공에게 시련과 통과의례를 부과하는 인물이다. 그는 개인적 아버지인 동시에 사회적 권위와 절대적 위엄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주인공에게 두려움과 긴장의 원천으로 자리해 왔다.

회귀 이후 주인공은 과거의 관계를 단순히 반복하거나 재현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이를 능동적으로 재구성한다. 그는 아버지를 더 이상 극복해야 할 공포의 대상이나 넘어서야 할 권위로만 인식하지 않고, 한 인간으로서의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시선을 획득한다. 나아가 아버지를 이제는 자신이 보호하고 구해야 할 존재로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관계의 방향성과 의미를 근본적으로 전환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관계의 질적 변화를 동반한다. 주인공은 이전 삶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정서적 교감과 상호 이해를 형성하며, 부자 관계는 일방적 긴장과 평가의 구조에서 상호 소통과 공감의 관계로 재편된다. 이 과정은 단순한 친밀감의 회복을 넘어, 과거의 상실과 무력한 목격 경험 속에서 형성된 트라우마를 치유하려는 무의식적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주인공이 아버지와와의 관계를 다시 쓰는 행위는 개인적 기억의 수정이자 정서적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치유의 실천으로 기능하며, 회귀 서사가 지닌 심리적 깊이를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 4. 작업화 (Working Through)

작업화는 주인공이 반복 강박의 국면을 넘어서는 지점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변화된 현실 속에서 미래 지식이 변화하면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단순한 반복적인 전략에 의존할 수 없게 된다. 주인공은 과거의 후회나 이미 정해진 결과가 아니라, 현재 자신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토대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응하기 시작한다. 이는 과거의 기억에 매달린 반응에서 벗어나, 현재의 판단과 선택을 통

해 트라우마를 능동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미래 지식의 한계에 대한 인식은 주인공의 내적 변화에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다. 그는 회귀 이후 과거의 경험과 미래 정보를 기반으로 사건을 예측하며 행동해 왔으나, 새로운 인물과 예기치 못한 사건의 등장으로 이러한 정보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음을 깨닫는다. 이 깨달음은 주인공을 수동적인 정보 활용자 역할에서 벗어나 현재의 조건 속에서 문제를 재구성하고 해결하는 능동적 주체로 전환한다. 다시 말해, 그는 과거에 고정된 시선이 아니라 현재의 맥락에 맞추어 사고하고 행동해야 함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작업화 과정은 주인공이 관계를 통한 치유의 가능성을 경험하게 한다. 과거 삶에서 그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타인과 거리를 두는 방식을 선택했으나, 회귀 이후 아버지, 팔마존, 그리고 동료들과 새롭게 형성한 신뢰 관계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며 연대와 상호 의존의 가치를 체득한다. 특히 자신을 순수한 의도로 신뢰하고 따르는 인물들을 마주하면서, 트라우마로 인해 손상되었던 대인관계에 대한 신뢰를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새로운 관계 윤리를 형성해 나간다. 이러한 관계 회복은 주인공의 가치관 재정립으로 이어진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후회나 복수심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현재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와 관계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단순히 재앙을 막는 데서 나아가, 주변 인물들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능동적 선택을 수행함으로써, 트라우마가 남긴 공허함을 새로운 목표와 의미로 대체한다. 결국 주인공의 작업화 과정은 미래 지식의 한계를 인식하는 단계, 관계의 회복과 확장을 통한 치유의 경험, 그리고 가치관의 재정립이라는 흐름 속에서 완성된다.

#### 5. 극복 및 치유 (Resolution & Healing)

극복과 치유는 이야기의 절정에서 실현된다. 이는 적대자를 물리치는 외적 성취에 그치지 않고, 주인공의 내적 상태의 변화를 통해 드러난다. 그는 과거의 비극을 막아내는 동시에, 자신과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미래를 구축한다. 궁극

적으로 주인공의 정체성은 더 이상 트라우마에 의해 규정되지 않으며, 실패한 과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회복력으로 재구성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로써 그는 트라우마를 작업화하여 의미화하고, 서사는 극복과 치유의 서사적 완결에 도달한다. 주인공은 더 이상 미래 지식이라는 과거의 그림자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는 현재 자신의 능력과 판단을 신뢰하며, 직접 내린 선택을 통해서 과거에 실패했던 '무력한 자아'가 아닌, '현재를 주도하는 영웅'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한다. 이 과정에서 그의 정체성은 단순히 트라우마를 경험한 존재에서, 트라우마를 극복한 주체로 재구성된다.

치유는 주인공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관계의 재정의와 공동체 회복으로 확장된다. 주인공은 아버지, 팔마존, 동료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며, 과거 상실로 인해 단절되었던 공동체를 회복한다. 이 공동체는 과거의 실패와 상실을 함께 기억하고, 이를 함께 극복하는 구조로 작동한다. 주인공은 더 이상 모든 짐을 혼자 감당하지 않고, 타인과의 협력을 통해 자신의 삶 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끈다. 이것으로 주인공은 트라우마의 재의미화를 실현한다. 그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단순히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이를 자신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발판으로 재해석한다. 이러한 자기 이해와 수용은 외상적 사건의 반복적 재현을 넘어, 진정한 심리적 치유와 정서적 완결에 도달하도록 한다.

#### IV. 결 론

본 연구는 웹소설 회귀 서사에 내재된 트라우마 극복의 서사적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 <절대회귀>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정신분석 이론의 핵심 개념인 외상적 사건, 반복 강박, 지연된 재현, 작업화의 틀을 적용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본 작품의 회귀 서사는 단순한 시간 되돌리거나 성공의 재현을 위한 장치를 넘어, 주인공의 내적 변화와 심리적

치유를 단계적으로 구조화하는 복합적 서사 메커니즘으로 기능함을 확인하였다.

<절대회귀>에서 주인공의 첫 번째 삶은 가족과 공동체의 파괴적 상실이라는 외상적 사건을 통해 자존감 붕괴와 정체성 손상을 경험하는 국면으로 제시된다. 이 외상은 단일한 비극으로 소거되지 않고, 회귀 이후에도 반복 강박과 지연된 재현의 형태로 현재에 재침투하며 주인공의 선택과 관계 맺음을 지속적으로 규정한다. 이는 트라우마가 과거에 고정된 기억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활성화되는 심리적 흔적을 서사적으로 가시화한다.

회귀 이후 주인공이 수행하는 반복은 과거를 기계적으로 되풀이하는 퇴행적 재현이 아니라, 관계·무력·치유의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변형되는 역동적 과정으로 나타난다. 특히 아버지와 관계는 두려움과 권위에 기반한 일방적 구조에서 공감과 상호이해의 관계로 재구성되며, 이는 주인공이 트라우마의 핵심 원인과 직접 대면하고 이를 재의미화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동한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무력함은 압도적인 무력으로 전환되지만, 그 목적은 지배나 복수가 아니라 보호와 책임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반복 강박은 점차 치유적 성격을 획득한다.

지연된 재현의 국면에서 미래 지식은 양가적 서사 장치로 기능한다. 그것은 주인공에게 재앙을 대비하고 개입하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과거의 상실과 공포를 현재적 감각으로 재현하게 만드는 매개가 된다. 그러나 새로운 변수의 등장과 예측 실패는 미래 지식의 절대성을 해체하며, 주인공을 과거에 묶어 두던 인식 틀로부터 분리한다. 이 지점에서 작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주인공은 더 이상 과거의 정보에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주체로 전환된다.

작업화의 핵심은 관계를 통한 치유와 가치관의 재정립에 있다. 주인공은 아버지, 팔마존, 동료들과의 신뢰 관계 속에서 상실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연대와 상호 의존을 삶의 중심 가치로 내면화한다. 그 결과 그는 재앙을 '막아야 할 미래 사건'이 아니라,

‘지켜야 할 현재의 삶과 관계’라는 관점에서 인식하게 되며, 트라우마가 남긴 공허함을 새로운 의미와 목표로 대체한다. 이는 트라우마 극복이 개인 내부의 심리적 회복에 그치지 않고, 관계와 공동체의 회복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치유는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의 회복으로 확장되어, 상실과 실패의 기억을 함께 공유하고 극복하는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한다.

결론적으로 <절대회귀>는 회귀 서사가 제공하는 ‘두 번째 기회’라는 서사적 환상이 단순한 성공 서사나 권력 획득의 이야기보다 회귀를 트라우마의 직면과 재의미화, 관계 회복, 자기 정체성의 재구성이라는 심리적 치유 과정과 결합함으로써, 회귀 서사의 서사적·정신분석적 잠재력을 입증한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웹소설 회귀 서사가 현대 독자에게 제공하는 심리적 위안과 공감의 근원을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며, 웹소설 텍스트를 트라우마 연구의 유의미한 분석 대상으로 확장할 수 있는 학술적 가능성을 확인한 사례로 의의를 지닌다.

## REFERENCES

- [1] 음성원, “웹소설에서의 회귀·환생 모티브 활용 연구,” *문화콘텐츠연구*, 제25호, 39-72쪽, 2022년 8월
- [2] 박성준, “웹소설 독자의 불안과 ‘재도전 서사’의 상 관성 연구,” *대중서사연구*, 제31호, 77-102쪽, 2020년
- [3] [https://series.naver.com/novel/detail.series?productNo=8981942&utm\\_source=chatgpt.com](https://series.naver.com/novel/detail.series?productNo=8981942&utm_source=chatgpt.com) (accessed Dec., 20, 2025).
- [4] <https://series.naver.com/novel/top100List.series?rankingTypeCode=WEEKLY&categoryCode=ALL> (accessed Dec., 20, 2025).
- [5] Freud, S., “*Remembering, repeating and working-through*”. In J. Strachey (Ed. & Trans.),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Hogarth Press, Vol. 12, pp. 145 - 156, 1914.
- [6] Freud, S., “*Beyond the pleasure principle*.” In J. Strachey (Ed. & Trans.),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Hogarth Press Vol. 18, pp. 7 - 64. 1920.
- [7] Abraham, K. “*A short study of the development of the libido*”, In M. A. Grotjahn (Ed.), The collected papers of Karl Abraham Hogarth Press, Vol. 2, pp. 1 - 72. 1924.

- [8] Herman, J. L. *Trauma and recovery: The aftermath of violence—from domestic abuse to political terror*. Basic Books. 1992
- [9] Caruth, C., *Unclaimed experience: Trauma, narrative, and histor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 [10] Laplanche, J., & Pontalis, J.-B., *The language of psycho-analysis* (D. Nicholson-Smith, Trans.). Hogarth Press. 1973.

## 저자 소개



임소영(정희원)

2012년 홍익대학교 영상학과  
박사 졸업.

<주관심분야 : 웹툰, 애니메이션,  
영상콘텐츠>